

文學史的命名與文學史觀的反思

문학사의 명명과 문학사관에 대한 성찰

저자 장푸구이 · 왕진추 · 양단단 · 장충호우
역자 장영미



동국대학교출판부

제1장

문학사적 명명과 문학사관의 새로운 인식

제1절	‘현대문학’의 위기와 증세	11
	1. ‘현대문학’ 연구의 3대 증세	11
	2. 역사의 통속화와 세속화	24
	3. 현대문학사 서술의 제약	32
제2절	‘현대문학사’의 모범적 서사와 성찰	38
	1. 중국 현대문학사 연구의 전범 형식의 문제	38
	2. 혁명사와 문학사의 결합: 탕타오(唐弢)의 문학사관	47
	3. 1930년대 ‘무산계급 문학’관의 본질적 특징과 사상적 원류	60
	4. 신문학과 지식인, 그리고 지식인의 담론	71
	5. 계급투쟁으로부터의 각성과 복위	85
제3절	‘민국문학’의 개념과 의의	106
	1. ‘시간’에서 ‘의미’로의 회귀	106
	2. 민국문학사의 기점, 민원(民元)의 의의와 가치	113
	3. ‘민국문학’과 ‘공화국문학’의 시기 구분과 차이	127
	4. ‘민국문학’ 연구의 방법과 경로	180
	5. ‘민국문학’ 연구의 질의와 성찰	202

제2장

문학사의 명명과 문학사관의 문화적 추세

제1절	‘중국’적인 현대화의 이해	223
	1. ‘중국적’ 문화철학의 전제: 인류문화 동일성의 인정	223
	2. ‘중국적’ 논리의 변증과 분석: ‘특수한 국가 사정’이라는 오해	230
제2절	어떻게 전통 중국인을 현대 중국인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241
	1. 두 가지 경향: 단순한 정치의식과 단순한 전통도덕	241
	2. 두 가지 명제: 인류의식의 동일성과 인류문화의 시대성	243

문학사의 명명과 문학사관에 대한 성찰

2019년 12월 20일 초판 1쇄 인쇄

2019년 12월 30일 초판 1쇄 발행

지은이 장푸구이·왕권추·양단단·장충호우

옮긴이 장영미

발행인 윤성이

발행처 동국대학교출판부

주소 04620 서울시 중구 필동로 1길 30

전화 02-2260-3483~4

팩스 02-2268-7851

Homepage <http://dgpress.dongguk.edu>

E-mail book@dongguk.edu

출판등록 제2-163(1973. 6. 28.)

편집디자인 역락

인쇄처 네오프린텍(주)

ISBN 978-89-7801-971-2 93820

값 30,000원

이 책의 무단 전재나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 제98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1960년대 이래 중국 현·당대문학 역사를 성찰하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인식을 가질 수 있다. 다름 아니라 고대문학 등의 전공에 비해 현·당대문학의 학과적 성격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가운데 가장 미성숙한 부분은 바로 현·당대문학사관의 변천 및 문학사에 관한 서술이다. 학술계에서 ‘문학사 다시 쓰기’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체계 변천과 실천에 대한 다른 학문에서의 서술과 비교했을 때, 중국의 주류 문학 이론과 문학사관의 변천에 관한 서술은 현저하게 낙후되어 있다. …… 이런 성찰을 통해 볼 때, 우리는 현·당대문학사 서술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진지하게 내릴 필요가 있다.



9 788978 019712



93820

값 30,000원

ISBN 978-89-7801-971-2